

주님이 부르시고, 사람이 세워가고

성경본문 <사도행전 9장 1절 ~ 19절 상>

[1]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[2]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[3]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[4]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[5]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[6]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[7]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[8]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[9]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[10]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[11]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[12]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[13]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[14]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[15]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[16]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[17]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[18]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[19]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...

사울(바울)의 첫 등장은 이렇습니다.

(행 7:58)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... (행 8:1)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

사울(바울)은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본 증인이자, 그 날 시작된 박해의 주인공(가해자)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. 그는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, 유대의 전통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(사교)를 믿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

1. 주님이 그를 직접 부르셨습니다.

[1]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[2]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

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[3]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[4]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[5]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

살기가 등등하여,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. 갑작스러운 것이었고, 그가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.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땅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

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“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?”라고 물어오셨습니다.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 빛 가운데 자신을 “나”라고 여기는 어떤 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습니다.

그 분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, 자신이 하는 일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

사울(바울)이 “주여 누구시나이까?”라고 묻자, 그 분은 자신을 “예수”라고 소개하셨습니다.

예수님과 만남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계획과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나 사울(바울)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.

2. 순종이 그를 살렸습니다.

[13]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[14]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[15]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

사울과 관련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, 주님은 당신의 종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울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.

스스로 이해도 되지 않고, 때로는 용서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,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자 계획임을 붙잡습니다.

주님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.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, 그 분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고, 온전히 말씀대로 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.

그 사람을 통해서, 사울이 살아나고, 그(사울)가 교회를 위한 바울이 됩니다.

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, 온 교회를 살리고,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 받게 됩니다. 우리 모두가 순종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합니다.

<기도제목>

1. 주님과 24시간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하소서.
2. 순종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.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.